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세계 장신구 걸작전: 변형된 신체

장신구는 동굴 벽화보다도 수만 년 앞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예술 형식이다. 장신구는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의 신체를 확장하고 증폭시키며, 때로는 강조하고 변형하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시켰다. 시공을 초월하는 이번 전시는 장신구의 본질과 착용의 이유를 살피고, 장신구가 인간의 몸과 상호작용하며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을 탐구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장신구의 세계사 속에 담긴 경이로운 이야기를 펼쳐 보일 이번 전시에서는 기원전 2000년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5대륙 4,000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걸작 200여점을 선보인다. 총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번 여정은 고대 문명부터 최첨단 현대 작품까지 장신구의 발자취를 추적한다. 각 섹션은 신체 장식의 다각적인 면모를 조명하며, 이를 향유했던 사람들과 그 문화를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의 작품을 나란히 배치하여 관람객이 입체적으로 비교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홍콩고궁박물관의 공동 기획으로 마련되었다. 홍콩고궁박물관의 멩디에쉬안(夢蝶軒) 컬렉션, 크리스 홀 컬렉션, 일루미나타 컬렉션의 귀중한 소장품도 함께 전시된다. 캐세이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주요 후원사로 참여하였고, 앨런 찬(陳幼堅) 이 그래픽 디자인 아트 디렉팅을 맡았 또한 홍콩 발레가 공연 영상을 제공하였다.

장식된 신체

장신구는 언제나 신체와 교감하며 존재한다. 예술 중에서도 가장 사적인 형태인 장신구는 몸의 곡선을 따라 안기듯 감기며 피부에 직접 닿기도 한다. 형태는 돋보이게 하고 아름다움은 더하는 장신구. 머리카락에 얹으면 머리와 얼굴의 존재감이 확장되고, 허리를 묵직한 장식 띠로 조이면 잘록하게 실루엣이 살아난다. 장신구를 착용하면 보일 듯 말 듯한 움직임도 극적인 동작이 된다.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는 숨 쉴 때마다 오르내린다. 팔찌는 팔꿈치를 조금만 굽혀도 위아래로 미끄러진다. 귀걸이는 고갯짓에 맞춰 달랑이고, 묵직한 반지는 몸짓으로 말을 걸 때 구두점을 찍는다. 몸이 있기에 장신구는 살아 움직이고, 장신구가 움직이기에 몸의 언어는 깊어진다.

신성한 신체: 황금 장신구

장신구는 신성과의 긴밀한 연결이자 신성을 드러내는 표식으로서, 그 시작부터 신의 속성이었다. 이집트, 아메리카, 중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출토된 고대 유물 속에서 장신구는 신적인 존재를 포착하고 활성화하여 구현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제1부에 전시된 장신구는 화려한 매장 유적에서 착용자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사후 세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일종의 장비였다. 예컨대 번뜩이며 생동하는 의례용 장신구로 치장한 칼리마 문화의 황금 인물상은 필멸의 육신을 눈부신 영원의 외피로 감춘 채 신적인 존재로 변모한 모습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신들의 세계를 주유하려면 장신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왕의 신체: 왕실 장신구

모름지기 왕이라 하면 어디에서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상징적인 재료에 최상의 솜씨를 더해 군주의 권위를 강조하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한 장신구는 왕권 유지에 필요한 정교한 위계를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장신구를 보면 군주의 몸인지, 왕실 수행원의 몸인지 아니면 일반 대중의 몸인지 바로 구별할 수 있다. 제왕의 장신구는 모방을 낳기도 한다. 왕관처럼 독특한 형태는 대중 사이에 유행하며 영향력을 발휘한다. 궁정 장신구에 사용된 재료는 금이든 보석이든 상관없이 특권에 수반된 권리를 대변한다. 자원을 통제하여 권력자만 쓸 수 있게 하였고, 화려하게 장신구를 착용하여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제2부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과거에 장신구로 신분과 지위를 드러냈던 다양한 방법을 엿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초월적 신체: 장신구와 신앙

장신구는 물질세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영적인 차원에서도 작동하며, 그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 말은 궤변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장신구의 재료는 모두 땅과 바다에서 채취한 금속과 광물처럼 지극히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가 지닌 희소성과 아름다움, 쉽게 파괴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성질, 손에 넣기까지 투입되는 인간의 막대한 노력은 장신구에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한다. 제3부를 구성하는 유물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령을 불러내고 신을 달래며 신성의 보호를 구하는 행위를 매개하여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장신구의 힘을 기린다.

매혹의 신체: 예술로서의 장신구

“매혹은 분명히 존재한다. 향수나 향기처럼... 주변에 퍼져 있다가... 기억처럼... 어디에나 스며든다.”

—다이애나 브릴랜드(1903~1989), 전설적인 패션 평론가이자 『보그』 편집장

장신구는 신비와 관능이 지닌 힘을 미묘하게, 때로는 극적으로 규정하고 재구성한다. 제4부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유물군으로 구성하여 여성의 신체에 매혹을 더하는 장신구의 복합적인 역할을 조명한다. 은으로 만든 신부 장식부터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브로치와 전복적인 초현실주의 장신구를 망라하여 여성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담긴 관념을 다지거나 뒤흔든다.

찬란한 신체: 재료, 기법, 그리고 혁신

장신구는 근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무릇 장신구는 반짝거리며 시선을 끌다가 빛을 받하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찬란함으로 눈부시게 피어난다. 제 5부에서는 재료의 가치, 디자인의 완성도, 장인의 기교, 놀라움을 넘어 충격에 빠지게 하는 힘을 중심으로 장신구가 드러내는 시각적 화려함을 탐구한다. 보석으로 만든 장신구는 물론 밀랍과 짚으로 엮은 장신구라 해도 눈에 띄고 싶고 뽐내고 싶으며 자랑하고 싶고 내보이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다. 그 극단에 이른 장신구는 신체에서 시선을 빼앗아 뒷자리로 밀어내고 교묘하게 다듬은 보석을 앞세워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한다.